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재웅
동국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미당 서정주 시 전집(전 5권)이 최근 출간됐다. 1933년부터 2000년까지 70년 가까운 창작 기간 동안 발표한 시들 950편을 모아 미당 사후 처음으로 간행한 정본 시 전집이다. 문학계의 경사다. 서정주는 한운권, 김소월, 정지용, 김영랑, 백석 같은 선배 시인들보다 오랜 기간 작품 활동을 했으며, 훨씬 많은 작품을 남겼다. 비판받던 우여곡절과 번민하는 오욕 질정을 지나 심층 생의 매력을 탐구하는 삶의 지혜와 원숙한 달관을 풍성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올해는 그의 탄생 100주

미당 시 전집 출간을 보며

년을 맞는 해다. 뜻 깊은 시기를 맞아 시인의 한 생애와 온전한 만남은 거듭 경사스러운 일이다. 미당 시 전집은 한 개인의 생애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말과 정신의 역사이기도 하다. 가령 그가 20대 초반에 쓴 '회사'라는 시에서 "올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아리나" 했을 때, 현대 맞춤법 규정과 충돌하는 이상한 소릿값을 감지하게 된다. 주유어가 아닌 번두리어, 교양인의 문어가 아닌 일상 구어로서 자존감을 지켜 나가려는 젊은 시인의 의지는 '푸른 하늘을 원통히 물어뜯어야 하는' 뱀의 저주받은 운명과 동일한 시되어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환경에 대응하는 '조선어의 투혼'을 증언한다. 암시적 어법 속에 강렬한 저항의 포스가 있는 것이다.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이 오부록이 도란그리며 안개에 드는 소리.....'(내리는 눈발 속에서는)가 보여주는 관용과 긍정의 세계는 한국전쟁 뒤의 참화와 폐허를 건너 내는 민초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이때는 꽃은 아직 없었고/ 꽃 노릇

을 대신하고 노는 것은/ 초록빛 도마뱀들이었네/ 그리고 타오르는 불빛의/ 제비들이 날아다녔네.'(멕시코의 영봉 씨드랄테페틀이 어느 날 하신 이야기)에 오면 세계를 굽어보는 여유와 활발한 상상력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준다. 그래서 이 시 전집은 그 자체로 한국 시문학의 역사요 우리 생활언어의 변천사다. 미당의 아름다운 시 세계를 향한 공감과 도취의 반대편에 그의 처신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의 시인 랭보는 '흙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라고 노래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모든 흠결이 덮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당 문학을 다 읽기 전에 그의 흠결부터 말하는 성급함에 서 잠시 비켜서는 일은 권면할 만하다. 우리 문학사는 '시의 생애'라 부를 만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져본 적이 없지 않던가. 시인은 "세계의 명산 1628개를 다 포개 놓은 높이보다도 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한정 없기만 하다"고 토로한다. 시가 생의 매력에 대한 심오한 탐구라는

뜻이다. 돌아보면 우리들 삶은 어제 오늘 다를 바 없다. 뜨거운 난로 위의 물방울처럼 이리저리 물리며 뛰어나다. 급하고 감각하고 메마르고 팍팍하다. 배려와 관용과 인내심도 부족하다. 자기 잘못보다는 남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드러내어 헐뜯는다. 좋은 것을 좋다 말하려 해도 주변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우리는 어느새 진중하고 심오한 생의 심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흠결을 보면서 위로와 관용으로 껴안아 주는 일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 원로 언론인 김성우는 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한다. "시는 어느 색도 물들일 수 있고 어느 색도 지울 수 있는 백색의 염료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가 녹이지 못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떤 분노도 어떤 원한도 시는 용액처럼 녹인다." 시에는 정서 순화의 기능은 물론 상처 치유의 기능도 있다. 미당 서정주 시 전집이 보여주는 '시의 생애'가 바로 그렇다.

의료칼럼

건강한 임신의 조건



김민우
청담산부인과외과 원장

직장인 이모(39)씨가 최근 6개월 이상 월경이 불규칙적이라며 병원을 찾아왔다. 증상이 심한 달은 한달에 두 번 가량 월경이 진행됐으며, 한번 시작될 때 월경량과 통증도 심했다고 한다. 본인은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증상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검진결과 다발성 자궁근종과 자궁 벽이 두꺼워져 있었다. 근종의 치료와 함께 자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시작했다. 자궁에 생기는 질환은 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의 양·악성 종양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생리불순, 부정출혈, 조기폐

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성들의 자궁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과로 등 다양하며 이러한 원인이 여성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면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성들이 자궁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자궁근종, 선근증 등 양성종양이 아랫배 통증, 월경량 증가 등의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궁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생리불순 또는 부정출혈 등이다. 생리불순은 불규칙한 생리를 말하며, 무배란 및 희소배란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부정출혈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의 양성종양 또는 자궁암 등 악성종양에 의해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자궁에 생기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의 영향으로 부정출혈이 이어진다면 근종을 치료한 후, 임신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폐경 전후인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45~50% 나타

나며, 최근 20~30대 젊은층과 청소년에게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변화로 악화되는데, 젊은 층에서는 스트레스나 무리한 다이어트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가임기 여성은 자궁근종을 진단받는다 해도 치료가 꺼려진다. 상태가 심할 경우 자궁절제술 혹은 자궁적출술을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새로 개발된 비수술 치료법을 권한다. 자궁근종·자궁선근증의 비수술 치료법은 초음파 중앙치료술로 자궁근종을 태워 없애는 시술로 비절개, 비침습 치료이다. 이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 중앙 치료술로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절개 없이 자궁근종만을 소멸시키는 최신 치료법이다. 자궁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을 자제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이 몸에 축적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아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흡연의 경우 자궁의 혈액순환 운동이 잘 되지 못하게 만들어 임신이 유산, 자궁출혈, 조산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평소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무너뜨려 무월경 또는 자궁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늦은시간까지 지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는 여성의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배란이나 유방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임기 여성은 자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생활습관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피하고 고기를 먹어도 지방이 적은 부위를 먹고 콩이나 참깨,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성의 자궁건강을 위해 담배연기, 합성세제를 비롯한 환경호르몬 화학제품을 피하고 아랫배 통증을 심한 여성의 경우에는 먼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社說

일본 정부 미쓰비시 배상 판결 외면 말아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예상했던 단연판 결과다. 하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어제 양극덕 부터 너무 멀리 왔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흠결을 보면서 위로와 관용으로 껴안아 주는 일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 원로 언론인 김성우는 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한다. "시는 어느 색도 물들일 수 있고 어느 색도 지울 수 있는 백색의 염료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가 녹이지 못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떤 분노도 어떤 원한도 시는 용액처럼 녹인다." 시에는 정서 순화의 기능은 물론 상처 치유의 기능도 있다. 미당 서정주 시 전집이 보여주는 '시의 생애'가 바로 그렇다.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것이다. 이들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은 1999년 3월이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2005~2008년 내려진 1~3심 판결을 통해 모두 미쓰비시에 면죄부를 줬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기업은 지금까지 소송에 지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회피할 수 없는 인도적 규범이다. 미쓰비시는 앞으로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배상을 함이 마땅하다. 한·일 관계 정상화 역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업소 임대 건물주 왜 처벌하지 않나

불법적인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일부 오피스텔이 새로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건물주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결국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올 들어 광주 지역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181명을 입건했으나 성매매 업자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225건의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으나 건물주를 처벌한 사례는 없었다. 불법 성매매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성상 비직접인 원인은 공급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라고 규정했지만 공급자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매매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를 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수

요가 촉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경찰의 느슨한 단속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업자에 건물주 임대해 준 건물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매매를 적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주를 적발하더라도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뉘우치면 별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위법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의 직무태만일 것인데, 서울 강남경찰이나 강남구가 불법 건물주에 대한 철거·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성매매 단속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1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수법은 교묘해지고 장소는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마치 변종바이러스처럼 진화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고 있다. 해결책은 경찰의 한발 앞선 단속과 강력한 처벌뿐이다.

기고

부끄러움을 알자



서오규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관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는 창피스러움을 둔감해져 가고 있다. 질서를 어기고 법을 어기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차켜두고 당당하게 맞선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 유치원생 같은 이야기지만 뒷불이 굵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치밀한 범람만으로 바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공자는 "세상을 정치로 이끌고 형벌로만 다스린다면 일시적으로는 바로 잡을 수 있을망정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는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자도 법령이 치밀해지면 도둑은 더욱 많아 진다고 했고, 태사공도 법령이 정치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청탁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진나라 시황제는 천하의 범망을 동원하였지만 간사함과 거짓이 판을 쳐 마침내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백성들은 교묘하게 범망을 뚫어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한나라는 고강배가 통째로 그물망을 빠져나갈 정도로 법을 줄이고 태용을 배풀었으며 범법자가 줄어든다고 태평성세를 누렸다. 이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덕행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국 초나라 황제 효문제와 법무부장관(정위) 장석자와 함께 섬서성 어느 지방을 행차하고 있었는데 다리 밑에서 농부 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와 달아나자 황제가 타고 있던 수레의 말이 놀라 팔짝 뛰었다. 화가 난 황제가 옆에 있던 법무부장관에게 저놈을 중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법무부 장관이 그 농부를 심문하였다. 너는 어떤 놀이 길래 감히 황제의 행차를 가로 질러 뛰었느냐 하고 묻자 농부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곳 정안현에 사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시위 소리가 들리기에 다리 밑에 숨어있었습니다. 얼마를 지난 뒤에 행차가 이미 다 지나갔을 것으로 알고 나왔는데 아직도 수레와 말을 이 보였으므로 놀라서 달아났을 뿐이요

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 농부에게 너는 임금을 놀라게 하였으니 정해진 법대로 벌금형에 처한다. 판결하고 돌려보낸 뒤 황제에게 판결결과를 보고하자 황제는 화를 버럭 내면서 "그놈은 나를 부당하게 할 뻔하였는데 벌금형에 처하다니 너무 가볍게 처벌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었다. 법무부장관 장석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범이란 황제께서 천하의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법을 어기고 시행에 처하게 된다면 법은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옵니다. 그때 즉시 폐하게 해서 그 농부를 죽이셨다면 그것으로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법무부 장관인 저의 손에 넘겨주신 뒤의 일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천하의 공정한 법을 다스리는 관리이옵니다. 한 번 그것이 기울게 되면 천하의 법을 다스리는 관리들은 모두가 제멋대로 가법고 무거운 것을 결정하게 되어 백성들은 편안히 믿고 살 곳을 잃게 될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깊이 살피시옵소서. 황제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법무부장관의 판결이 옳다" 하면서 그 농부를 사형시키지 않았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 자체가 '이미 법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민이 일부자가 없는 관리들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옛날 시골서당에서 훈장님이 학생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훈장님이 갑자기 흥분증에 걸려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총성총'이란 글자를 가르쳐야 하는데 '통통통'하고 선장을 하니가 학생들도 따라서 '통통통'하고 따라하였다. 훈장님이 "나는 통통통팅 하더라도 너희는 통통통팅하여야지" 하며 화를 내셨다. 선생님이 통통통이라고 발음을 하면서 선장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총성총이라고 따라하겠는가. 요즘을 TV나 신문에서 고위직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였거나 금품을 수수했다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울 것인가. 질서를 어기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서 지도할 것인지,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無等鼓

형조판서(刑曹判書)는 조선시대 6판서 중 하나로 정이품(正二品)이며, 지금의 법무부장관에 해당한다. 한때 훌륭한 정승이나 장군에 대한 옛 기록은 많은 데 비해, 형조판서로서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는 별로 없다. 다만 노비 출신으로 형조판서의 자리에 오른 '반석평'이라는 인물은 능력에 의해 출세한 사람, 정직과 정렴결백의 상징으로 다양한 기록에 나와 있다.

형조판서(刑曹判書)는 조선시대 6판서 중 하나로 정이품(正二品)이며, 지금의 법무부장관에 해당한다. 한때 훌륭한 정승이나 장군에 대한 옛 기록은 많은 데 비해, 형조판서로서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는 별로 없다. 다만 노비 출신으로 형조판서의 자리에 오른 '반석평'이라는 인물은 능력에 의해 출세한 사람, 정직과 정렴결백의 상징으로 다양한 기록에 나와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이익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반석평은 애초 노비 출신 판서

노비 출신 판서

있을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문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과거에 응시하고 싶어 했다. 주인집 도령이 공부할 때 주변에서 도둑 공부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석평의 도둑 공부는 자연히 잠깐대 모든 식구들에게 알려졌고, 이 참판도 결국엔 눈치를 채게 됐다. 그의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 참판은 반석평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아들이 없는 가난한 양반인 반서린의 양자로 갈 수 있도록 우선해 준다. 이때 이 참판은 그에게 노비였던 신분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까

중증은 어전회의를 열었으나 대신들의 의견은 모두 같았다. 그의 벼슬을 유지시키자는 것이었다. 이 참판의 아들에게도 사용원 별자 자리를 내리도록 했다. 중종실록에는 반석평이 정직한 성품에 집안이나 배경이 아닌 능력에 의해 등용된 모범 사례로 기록돼 있다. 최근 고흥 출신 김현을 서울고검장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다. 법무부장관은 어느 각료보다 청렴이 요구되는 자리다. 김 내정자가 정직하고 소신 있는 태도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길 바란다. /채희중 사회탐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